

설국 속 파란 하늘이 봄을 향해 걸어간다

지난 1월 방문한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인근 설경.



〈35〉 경기도 가평-오광섭



겨울답
지 않게 푸근하다 싶더
니 폭설과 추위가 맹위를 떨
치며 전국에 한파가 며칠째 이어
졌다 햇볕이 드리우는 날을 기다렸다
가 가족과 함께 '눈의 여행'을 시작했
다.

경기도 가평 작은 아버지 집이 여행의 목
적지다. 작은 아버지는 서울에 살면서 운수
업에 종사하다가 15여년 전에 퇴직하고
이곳에서 전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. 오
래 전부터 소박하면서도 멋진 풍경과
함께 자연 속에서 노후를 보내길 바
라던 작은 아버지. 좋은 풍경을 즐
기고 관조할 줄 아는 분이 그간 내
렸던 눈으로 온통 눈꽃 세상으로

변한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생
각났단다. 고기와 고구마도 구
워먹자 하고 멋진 설경도 담
아가라시며 초대의 전화
가 왔었다.

나는 지난 연말까지
정신없이 바쁘게 창작활동을 했기
에 가정에는 소홀했었다. 새해가 시작되
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. 어린 딸
에게 특별한 계절이 만들어 준 눈세상을 추억으
로 선물할 수 있는 기회. 그동안 자주 할 수 없었던
가족여행을 만회하면서 또 하나의 추억과 웃음꽃,
그리고 멋진 설경을 카메라에 담을 것이라는 행복
한 상상. 그렇게 작은아버지 초대는 일석삼조의 여
행을 제공했다.

작은 아버지의 집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
촌 청평호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. 광주에서 보
통 4시간 정도 걸린다. 하지만 여유롭게 쉬
엄쉬엄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들리 굳것
질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.

서울을 지나고 목적지에 가까워
지면서는 국도, 지방도로를 가다
서다 좋은 풍경을 사진에 담았
다. 그렇게 무려 8시간 걸려
도착했다. 반갑게 마중나오
신 작은 아버지는 2년 새
흰머리도 부쩍 많아졌고
시골 사람이 다 돼 보
였다.

딸 유림이의 웃음소
리와 모처럼 찾아온 아침햇살이
어우러진 상쾌한 하루가 시작됐다. 땅거
미 내려 앉을 즈음에 도착해 잘 몰랐지만 정말
눈꽃, 설국이 따로 없는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. 눈
산 깊숙한 곳으로는 온세상이 하얗고 하늘은 유독 푸르
렀다. 도심에서는 느끼기 힘든 겨울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
다웠다. 겨울 한가운데 있는 산은 느릿느릿 봄을 향해 걸어가
는 것 같다.

쁘드득 뽀드득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발에 유림이의 발자국
이 새겨졌다. 이내 두 시간 정도 지나니 가족 모두가 함께한 주변은 온통
즐거운 흔적으로 채워졌다. 눈싸움을 하고, 눈사람을 만들고... 한쪽 비탈진 곳
에 큰 대야를 들고 온 할아버지. 썰매 시범을 보이는 순간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최고
의 미소로 답해준다. 그 어떤 놀이시절 부럽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다.

장갑을 끼고 놀았지만 손은 땀방 얼었고 귀여운 얼굴이 빨강게 물들었다. 안쓰
런 마음에 손과 얼굴을 감싸며 호호 사랑을 불었다. 그 와중에도 아빠 귀전
에 광주 할머니에게 맡겨둔 감아지 '짱아'가 생각난단다. 유림이
의 머리 속은 온통 이 눈밭에서 짱아와 같이 뛰노는
생각 뿐이다.



오후에는 청평호 수변을
돌러보았다. 호수는 고요하고 둔치의 느티
나무는 강건했다. 진정 차분해지는, 그리고 수려한 경관
이 너무 아름답다. 청평호 하류이면서 도로가 없어서일까, 인적
이 드물다. 눈앞에 펼쳐진 이국적인 모습의 설경. 그 누구도 갖지 않는
풍경을 담는다는 욕심에 연신 셔터를 눌렀다. 다른 계절엔 물과 식물, 꽃이
풍성했겠지만 지금은 차가운 바람이 감도는 호수는 하얀 눈이 많이 내려 음소거
버튼을 누른 듯 조용했다. 내 카메라 셔터 소리는 호수의 적막함을 조금씩 지웠다.
그 순간 가엸은 소멸의 풍경은 또다른 침묵의 풍경. 텅빈 총만함으로 가득했다.
호수의 상류는 좀 전과 많이 달랐다. 꽤 많은 여행객들과 차량들 그리고 펜션과 현수막
이 이곳 저곳 눈에 띄었다. 유독 사람이 많이 붐볐던 한 식당에서 황태해장국을 가족 모두
맛있게 먹었던 일도 기억난다. 사계절 풍경이 좋아 가평이나 양평에는 많은 작가들이 터를
잡고 작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그간 알게된 작가 몇 분도 가평에 화실을 갖고 있다. 서
울~가평을 오가며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근사한 풍광을 즐기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니
부럽기 그지없다.

청평호 주변을 좀더 드라이브 하면서 보니 여전히 차창 밖으로 멋진 설경이 펼쳐져 있
었다.

다음날 아내가 평소 가보고 싶어한 남이섬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. 어
제 신나게 놀았지만 무리해서인지 유림이가 열이 심해졌기 때문이다. 더욱이 때
서워진 차가운 바람, 심상치 않은 날씨는 여행의 끝을 조금 앞당겼다.
북한강 상류로 30km 정도만 올라가면 도착하는 남이섬을 가보지 못하고
집으로 향하는 아쉬움이 진했다. 나중에 다시 찾기로 하고 아름다운 수
변 경관과 산세 수려한 작은아버지 집에서의 인상은 좋은 추억으로
남을 것이다.



오광섭
-전남대 예술대학 졸업
-개인전 4회, 2015 한국구상
대전전, 한국현대미술 신기회
전 등 단체전 200회.
-한국 미술 협회, 신 형 회,
KAMA, 한국현대인물화가회,
신기회 회원.



매주 신상품 입점 **이태리가구**